



제7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



최우수로니상

For 영.사.친.

▶ 송희건, 손채민, 배주안



리포트

멸종위기종 지정은 영산강의
멸종위기종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웹툰

영산강의 사라져가는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2025. 4. 14. - 11. 15.



각오한마디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송희건, 배주안, 손채민입니다. 저희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영산강 공생의 길' 프로젝트를 하면서 영산강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SNS에서 '환경'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체커톤 홍보를 보고 올해 공금했던 영산강의 멸종위기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영산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종과 생태계에 대해 깊이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영산강에 사는 동물들이 멸종하면 자연과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꼭 알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영산강의 사라져 가는 친구들을 위해'라는 의미를 담아 'For 영.사.친'이라는 팀 이름을 지었어요. 학교는 달라도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팀워크가 정말 좋아요. 팩트체크를 열심히 해서 체커톤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전라남도교육청의 많은 학생과 선생님께 알려 영산강의 멸종위기종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자연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영산강과 영산강의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예요. 최선을 다할게요!

팩트체크 리포트

* 멸종위기종 지정은 영산강의 멸종위기종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환경오염이나 동물과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환경 문제들이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크게 와닿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멸종 위기라는 말은 유치원 때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멸종 위기 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멸종 위기라고 지정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하면 동물들에게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멸종 위기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뉴스나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 For 영.사.친 팀은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질문에 대해 조사해보면, ‘멸종 위기 동물 지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도움이 안 되는지 방법을 찾고 싶고, ‘도움이 된다’면 왜 멸종 위기 동물들이 왜 계속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실천해보고 싶었어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왜 특히 영산강에 사는 멸종 위기 동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말할게요. 저희 <For 영.사.친.>은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에요. 저희 전남의 학교들은 매년 영산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영산강은 호남 지역 사람

들과 동물,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 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부터 노력하자는 프로젝트가 정말 좋았고, 영산강에서 사라져가는 동물 친구들에 대해 공부하면 우리가 직접 강에 가서 관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멸종 위기 동물 전체가 아니라, 영산강에 사는 멸종 위기 동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만든 자료를 교육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보여주고 알리고 싶어요. 영산강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어요.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우리들의 팩트체크 나침반!





㉑ 팩트체크 주제와 만나 친해지기

찾아보기
인터뷰(물어보기)
직접해보기

연번	질문	조사 방법
㉑-1	멸종위기종, 국가생물종, 국가보호종이 무엇이죠?	찾아보기
㉑-2	멸종위기종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찾아보기
㉑-3	멸종위기종 어디까지 얼마나 알고 있니?	직접해보기

① 팩트체크! 다양한 정보 탐색과 활동 해보기

연번	질문	조사 방법
①-1	멸종위기종이 증가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찾아보기
①-2	멸종위기종은 왜 보호해야 하나요? (생물 다양성을 위해 왜 노력해야 하나요?)	찾아보기
①-3	멸종위기종 관련 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찾아보기
①-4	멸종위기종 지정으로 멸종위기종이 복원된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물어보기
①-5	멸종위기종을 지정했지만 복원되지 않거나 관리에 실패한 사례는?	찾아보기
①-6	영산강의 멸종위기종인 사라져가는 영산강 친구들은?	찾아보기
①-7	영산강의 환경은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찾아보기
①-8	영산강의 수질 환경은 진짜 좋아졌나요?	직접해보기
①-9	영산강 멸종위기종 친구들이 사는 영산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멸종위기종들에게 도움 되고 있나요?	찾아보기 물어보기

② 팩트체크에서 더 나아가기!

연번	질문	조사 방법
②-1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종 및 국가생물종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찾아보기
②-2	멸종위기종이 야생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물어보기
②-3	멸종위기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③ 팩트체크 주제와 만나 친해지기
< 멸종위기종이 뭐예요? >

1. 멸종위기종, 국가생물종, 국가보호종이 무엇이죠?

▶ 출처(웹페이지)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 <https://species.nibr.go.kr/>
- 국립생태원 누리집, <https://www.nie.re.kr/nie/main/contents.do?menuNo=200119>

▶ 조사한 내용

- 국가생물종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관리가 필요한 모든 생물들의 종류예요.
- 국가보호종이란? 우리나라에 사는 동물과 식물 중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같은 곳에서 법으로 정해서 보호하는 생물이에요.

▶ 국가보호종의 종류

관리부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천연기념물센터	산림청
이름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종류 수	282종	91종	70종	571종
관련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	문화재 보호법 제 25조 제 1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호, 5호

▶ 환경부지정관리종은?

- 멸종 위기 동물뿐만 아니라, 수출하거나 들여오는 것, 잡거나 채취하거나 먹거나 팔거나 하는 것들이 제한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여러 야생 동물들을 모두 포함해요. 예를 들면, 사냥하는 동물,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라고 정한 동물, 생태계를 망치는 동물 등이 있어요.
- 멸종위기종이 환경부 지정관리종에 포함돼요.

▶ 우리의 생각

이렇게 여러 법과 기관에서 여러 동식물을 다르게 관리하는 것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2. 멸종위기종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 출처(책)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계자료집』, (환경부, 국립생태원), 2023년, 8쪽~17쪽

▶ 조사한 내용

-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자연을 지키고 야생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92종의 야생 동물과 식물을 정해서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멸종 위기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법으로 보호받기 시작했어요.
- 여러 번 명칭과 종 수가 바뀌다가 지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해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 1989년 이후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 수는 계속 늘어나 지금은 92종에서 282종까지 증가했어요. 1998년에 법이 바뀌면서 어류, 곤충, 양서·파충류의 지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 **우리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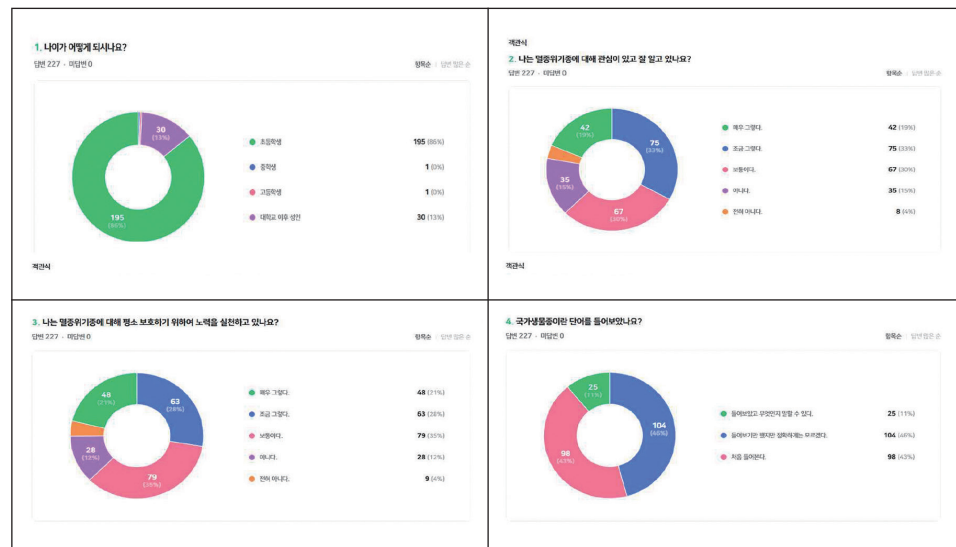
- 멸종위기종을 지정을 시작한 후로 멸종위기종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 5년마다 재지정을 하고 있는데 2027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추가로 늘어날지 걱정돼요.
-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어떤 보호를 받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3. 멸종위기종 어디까지 얼마나 알고 있니?

▶ **출처(설문조사: '멸종위기종 어디까지 얼마나 알고 있니?')**

- 대상: 전남 초등학교생 195명, 중고등학생 2명, 전남 초등학교 선생님 30명, 총 227명
- 전남 초등학교생 선정 이유: 우리와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했어요.
- 홍보 방법: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설문을 QR을 드려서 학생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 **조사한 내용**



- 멸종위기종이라는 단어는 '보통이다' 이상의 알고 있는 사람이 184명으로 82%의 사람들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
- 국가생물종, 국가보호종,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의 단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70% ~ 90% 정도의 사람들이 잘 몰랐다.
- '멸종위기종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85%였고, 대다수는 환경 오염 및 인간들의 개발로 서식지 파괴, 지구온난화, 사람들의 낮은 관심들을 이유로 생각했다.
-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80% 정도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평균이나 평균 이하로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 설문 후 느낀 점들은 주로 '멸종위기종을 위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와 '멸종 위기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생물종, 국가보호종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 **우리의 생각**

- 국가생물종, 국가보호종,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 식물 같은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우리가 탐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은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사람들에게 '멸종위기종이 왜 늘어나고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겠어요.
- 팩트체크를 하면서 멸종위기종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도 찾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① 팩트체크! 다양한 정보 탐색과 활동 해보기

1. 멸종위기종이 증가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출처**

- 유한주, "전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 200만종...4년새 2배로 급증", 연합뉴스, (2023년 11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9134300009>
- 이한, "'이러다 다 죽어'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군 73% 줄어든 이유", 뉴스핌, (2024년 10월 10일),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27>
- 기상청 블로그, 더 이상은 잃을 수 없어요, 점점 많아지는 멸종위기 생물, (2022년 10월 25일) https://blog.naver.com/kma_131/222906176475

▶ **조사한 내용**

구분	내용 요약
연합뉴스 기사	2023년 록셈부르크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소속 연구진이 과학 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2019년에 유엔이 발표한 100만 종보다 훨씬 많은 200만 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멸종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인간 활동이라고 해요.

뉴스핌 기사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의 개체군이 평균 73%나 줄어들었어요. 이 큰 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예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외래종이 침입하는 것, 그리고 질병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생태계가 훼손되면 우리가 의지하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건강한 토양 같은 자연의 혜택을 누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 인간에게도 피해가 온다고 해요.
기상청 블로그 글	에드워드 윌슨은 멸종위기종이 많아지는 과정을 HIPPO로 설명했다. 'Habitat 서식지 ▶생태계의 서식지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Invasive 침입 ▶사람들의 침입이 있기 때문이다.' 'Population 인구 ▶인구증가로 침입이 증가하는 것이다.' 'Pollution 오염 ▶인구가 증가하니 환경오염도 많이 발생한다.' 'Overexploitation 과도한 착취 ▶뿐만 아니라 과도한 착취까지 하고 있다.'

▶ **우리의 생각**

- 우리가 알던 것보다 멸종위기종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 멸종위기종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 개발을 하면서, 결국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의 활동이 멸종 위기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 멸종위기종이 더 늘어나는 또 다른 큰 원인은 바로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오염에는 수질 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도 포함되지만, 특히 지구온난화도 멸종위기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멸종위기종이 늘어나는 이유는 모두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2. 멸종위기종은 왜 보호해야 하나요?(생물다양성을 위해 왜 노력해야 하나요?)

▶ **출처**

- 정부 발표 자료: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1~'25), 환경부, 2020년 12월 28일, 14페이지
- 뉴스 : 김청한, "인류가 생존하려면 생물다양성 필요", 더사이언스타임즈, (2010년 5월 6일),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55?searchCategory=226&nscvrgSn=83254>

- 웹페이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생물다양성협약, <https://www.kbr.go.kr/index.do>
- 뉴스: 박종익,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 나우뉴스, (2024년 8월 20일), <https://www.catchup24.com/news/global-topic/science-explore/2024/08/20/20240820601017>

▶ 조사한 내용

구분	내용 요약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생태계는 공급(음식과 연료), 조절(기후·재해), 문화(심미·여가), 지원(영양 순환·토양형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해요. 또 전 세계 인구의 80%가 야생 생물에서 약을 얻는다고 해요. 하지만 야생 생물은 단순히 이용되는 것뿐 아니라, 생명 자체로도 소중한 가치가 있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에요. 또한 야생생물이 줄어들면 유전자가 다양하지 못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우리 자연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기 때문에 야생생물을 잘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더사이언스타임즈 기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원 교수님께서 “생물다양성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자산”이라고 하였고, 지구 위 모든 생물들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환경과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 인간도 생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공룡처럼 멸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먼저 지금 남아있는 생물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둘째로 이 생물들을 자세히 연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게 이용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 우리의 생각

- 생물다양성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양한 동식물 종류(생물종 다양성), 생물이 사는 여러 환경(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생물들이 가진 여러 유전자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해요.
- 생물다양성을 잘 지키려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도 꼭 보호해야 해요.
-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생물다양성이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서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 보호에 앞장서야 해요.

3. 멸종위기종 관련 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출처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시행 2025. 12. 14.), (법률 제20119호, 2024. 1. 2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_보호_및_관리에_관한_법률/\(20119,20240123\)](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_보호_및_관리에_관한_법률/(20119,20240123))
- 뉴스: 신준섭,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놀라게 한 사진촬영가 50만원 벌금”, 뉴스1, (2016년 12월 6일),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2850214>
- 뉴스: 차근호, “인터넷 검색 10분 만에 멸종위기종 거래 4건, 불법 거래 만연”, 연합뉴스, (2016년 8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2150800051>
- 정부 보도자료: 김권우,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2022년 12월 7일), <https://me.go.kr/>

▶ 조사한 내용

구분	내용 요약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이 사는 환경을 잘 관리해서 멸종되지 않도록 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결국 사람과 야생생물들이 함께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예요.</p> <p>★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야생생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야생생물이 멸종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야 해야한다고 해요.</p> <p>★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야생생물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조사하고, 어떻게 보호할지 계획을 세우며 국제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계획을 잘 따라 함께 노력해야 해요.</p> <p>★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대책)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을 지킬 계획을 5년마다 세워 야생생물들이 사는 곳을 보호하고, 어려운 동물은 늘려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필요할 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p> <p>★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환경부장관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역을 지정하고 노력해야 해요.</p> <p>★ 제68조(벌칙)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큰 벌금을 물어요.</p> <p>★ 제69조(벌칙)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p>

구분	내용 요약
뉴스1	<p>★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밤에 강한 빛(서치라이트)을 쬐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또 촬영할 때 편하려고 나무를 자르는 등 동지를 망가뜨려서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혐의로 사진 촬영자 3명이 각각 50만원 벌금을 받았어요.</p> <p>★ 멸종위기종(야생동물)을 찍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밤에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수리부엉이 같은 멸종 위기종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p> <p>★ 이번 사건이 멸종위기종(야생동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촬영을 막고, 법정 보호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p>
연합뉴스	<p>★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국내에서 '왕뱀'이라고 불리는 보아뱀은 멸종위기종 보호 협약(CITES)에 따라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거래된 보아뱀은 환경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거래였다고 해요.</p> <p>★ 국제적 멸종위기종 2등급인 멕시코 도롱뇽 '우파루파'를 키우거나 거래하려던 사람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요.</p> <p>★ 인터넷에서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가 많지만, 정부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고, 신고와 올바른 거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홍보도 부족한 상태예요.</p> <p>★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몰랐다고 해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라는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올바르게 신고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해요.</p>
영산강유역환경청 보도자료	<p>★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밀렵(불법 사냥) 현장을 단속했어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4,1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가공한 사람을 찾아내어 경찰에 고발했어요.</p> <p>★ 하지만 영산강 주변에서는 멸종위기종 구렁이, 멧돼지, 뱀 등 다양한 동물을 잡는 밀렵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단속을 더 강화한다고 해요.</p> <p>★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람들이 밀렵과 불법 거래 신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알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p>

▶ 우리의 생각

-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 법은 멸종위기종과 야생생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도 보호하고 있어요. 또 멸종위기종 관련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려줘요.
- 법을 모른다고 해서 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잡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니

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종위기종 관련 법을 잘 알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생물다양성이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서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 보호에 앞장서야 해요.

4. 멸종위기종 지정으로 멸종위기종이 복원된 성공한 사례는?

▶ 출처

- 뉴스: 황인솔, "멸종위기에서 벗어난 '기적의 동물들'", 뉴스펄링, (2019년 2월 26일),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
- 정부 보도자료: 김영, "멸종위기종인 「붉은점모시나비」 복원사업, 세계적 성공사례로 인정받다.", 환경부, (2021년 5월 26일), <https://www.me.go.kr/wonju/web/board/read.do?menuId=1056&boardId=1456660&boardMasterId=258>
- 정부 보도자료: 김경석, "멸종위기종 산양, 정부합동 보호대책으로 지난 겨울 무사히 넘겼다.", 환경부, (2025년 4월 10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3487&pWise=mSub&pWiseSub=C5#pressRelease>

▶ 조사한 내용

구분	내용 요약
뉴스펄링 기사 (외국 사례)	<p>★ 흑등고래: 1966년부터 포경이 제한되고, 미국도 1971년에 상업 포경을 금지하면서 보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1973년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서 개체수가 800마리까지 줄었지만, 지금은 2만1000마리까지 늘어나서 멸종위기 목록에서 빠졌어요.</p> <p>★ 태국서부호랑이: 2006년에는 한 달에 19번만 관찰됐는데, 2017년에는 144번으로 늘었고, 호랑이 수도도 41마리에서 66마리로 증가했어요.</p> <p>★ 버마 별거북: 1990년대에 애완용으로 많이 잡혀 멸종위기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750마리를 키우고 야생에 돌려보냈어요. 지금은 1만4000마리까지 늘었어요.</p> <p>★ 동인도산 큰 황새: 예전에는 사람들이 알을 주워가거나 숲이 파괴돼서 멸종위기였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보호 조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알을 주워가는 일을 막았어요. 지금은 1200마리까지 늘었어요. 이외에도 키한시 스프레이 두꺼비, 슬라웨시 무덤새, 아메리카 들소가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어요.</p>

구분	내용 요약
환경부 보도자료 (국내 사례)	<p>★ 붉은점모시나비는 멸종 위기였는데,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연구소에서 인공으로 번식해서 다시 자연에 풀어주는 복원사업을 했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0쌍을 방사했고, 이게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았어요.</p> <p>★ 2021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전 세계 사례 69개를 소개했는데, 이 붉은점모시나비 복원사업이 최고 단계인 '매우 성공적'으로 인정받았어요.</p>
환경부 보도자료 (국내 사례)	<p>★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데, 겨울철에 많이 죽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부는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으로 먹이 급이대를 설치하고, 폭설이 오면 실 수 있는 쉼터를 운영했어요. 산양의 구조가 필요하면 순찰을 강화했고, 찾길 사고를 막기 위해 홍보 현수막과 문자 안내판도 설치했어요.</p> <p>★ 이런 노력 덕분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산양의 폐사율이 785마리에서 31마리로 크게 줄었어요. 무려 96%나 감소했어요. 사람들과 정부의 힘이 합쳐져서 산양 보호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거예요.</p>

▶ **우리의 생각**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멸종위기종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 국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 단체, NGO(비정부기구)에서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멸종위기종 잡는 것을 막거나, 인공으로 새끼를 키워서 다시 자연에 돌려보내는 일이 하고 있었어요. 또 서식지를 복원하거나 먹이를 주기도 하고,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있어요.
- 열심히 노력하면 멸종위기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 더 많은 멸종위기종을 구하려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 **출처**

- 방문 장소: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생태탐방원(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02-25) 구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7)
- 탐사 프로그램: 지리산생태탐방원 생태여행_자연 Talk, 힐링 Talk(반달가슴곰 생태체험)

- 탐사일: 2025년 5월 11일(일)

▶ **조사한 내용**

지리산반달곰을 위해 지리산생태탐방원의 노력

- 곰이 자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서식지를 복원하고, 생태 통로를 만들어서 곰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 곰이 새끼를 낳거나 민감한 시기에는 탐방로를 잠시 통제하거나 예약 탐방제로 바꿔 곰과 사람 사이의 충돌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탐방객들이 곰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이나 방송, 대차 요령도 알려주고 있어요.
- 밀렵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곰 서식지 내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멸종위기종인 지리산반달곰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태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 **우리의 생각**

-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지리산반달곰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걸 단순히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 단체나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멸종위기종이 있고 그들이 생태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알게 된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지리산 생태 복원 체험]

5. 멸종위기종을 지정했지만 복원되지 않거나 관리에 실패한 사례는?

▶ **출처(뉴스)**

- 김민욱, “버려지는 멸종위기종”, 생태계 보호 위해 ‘밀수’ 중단돼야”, MBC, (2023년 11월)

5일), https://youtu.be/Mbs05g_34Ak?si=8zp_5YTlnQLQU0fr

- (기고글): 박시룡, “생태계 무시한 마구잡이식 종 복원”, 한겨레, (2007년 1월 2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81694.html>
- 월간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의 ‘허와 실’ 부족한 인력 빠듯한 예산 문제 지적”, 조선일보, (2013년 3월 8일), <https://s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6>
- 박천학, “위기에 빠진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사업’”, 문화일보, (2013년 8월 26일), <https://www.munhwa.com/article/10858617>
- 김정수, “크낙새 절멸 추정...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지우기로”, 한겨레, (2017년 7월 13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02648.html>

▶ 조사한 내용

구분	내용 요약
MBC	희귀하고 독특한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버리는 동물이 연간 약 200마리나 된다고 해요. 이런 동물들은 사이테스(CITES)라는 국제 협약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키울 수 있어요. 개인이 몰래 밀수로 들여오거나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그리고 몰래 버려진 멸종위기종은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멸종위기종이 자연에 적응하지 못해서 살아남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한겨레	종복원은 단순히 한 번만 하거나 이벤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획적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최근 정부, 환경단체, 지자체까지 따오기, 느시, 두루미 등을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새들은 모두 겨울철새예요. 철새를 복원하려면 멸종 위기의 조류인 따오기·느시·두루미 등을 인공증식시켜 이들이 번식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자연에 방사시켜, 한반도에는 철새로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만일 이 새들을 우리나라 자연에 방사시키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멸종위기종이 복원되어 늘어날 때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판단해야 해요.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조선일보	지역 주민들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종복원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워요.
조선일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훼손,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이상기후 같은 문제들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북의 멧황새 서식지 복원이나 독도 바다사자 복원 계획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적절한 예산과 체계적

한겨레	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도 많았어요.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일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한겨레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가 절멸한 것으로 추정되어 크낙새와 큰수리팔랑나비는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었어요. 반대로 미선나무, 층층동굴레는 개체수가 증가해서 멸종위기종이 해제되기도 해요. 크낙새는 5년 전 멸종위기종 목록 고칠 때도 포함이나 제외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기기도 했어요.

▶ 우리의 생각

- 철새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번식하고 겨울이나 이동할 때 우리나라에 오는 새예요. 그런데 만약 철새를 우리나라에서 잘못 번식시키면 철새가 아닌 텃새가 되어 우리나라에만 머물 수도 있어요.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기에 멸종위기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번식시키기만 하면 안 되고 자연과 생태계를 잘 연구하여 한다는 것을 모두 꼭 알아야 해요.
-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려면 최소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단순히 잠깐의 이벤트처럼 추진하면 성공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예산과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해요.
-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 멸종위기종을 밀수로 들여오는 것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멸종위기종에게도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 돼요.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은 모두의 책임이란 것을 생각해야 해요.
- 멸종위기종 복원에 성공하여 개체수가 증가하여 해제되기도 하지만 절멸(멸종)하여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6. 영산강의 멸종위기종인 사라져가는 영산강 친구들은?

▶ 출처(웹페이지)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생태환경 - 천연, 멸종, 보호종 - 유역별 - 영산강), https://www.wamis.go.kr/wke/wke_envspbb_lst.do

▶ 조사한 내용

구분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영산강 상류	붉은배새매, 팔색조, 샓, 담비, 수달, 새호리기, 독수리, 참매, 흰목물떼새, 잿빛개구리매, 수리부엉이, 큰고니, 흰꼬리수리	원앙, 붉은배새매, 소쩍새, 황조롱이, 두견, 팔색조, 수달, 독수리, 참매, 잿빛개구리매, 큰고니, 새매, 매, 수리부엉이
황룡강	붉은배새매, 새매, 올빼미, 새호리기, 팔색조, 샓,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통사리,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원앙, 붉은배새매, 소쩍새, 수달, 매, 참매, 솔부엉이, 두견, 팔색조, 올빼미, 수달, 하늘다람쥐
지석천	양비둘기, 붉은배새매, 새매,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수달, 샓, 큰고니, 참매, 수리부엉이, 꺾저기	황조롱이, 원앙, 붉은배새매, 매, 수달, 새매, 솔부엉이, 수리부엉이, 큰고니, 원앙, 참매, 소쩍새
죽산보	샓, 무산쇠족제비, 수달, 붉은배새매,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꺾저기, 긴꼬리딱새, 수리부엉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황조롱이, 수달, 호사도요, 원앙, 붉은배새매, 두견
고막원천	샓, 수달, 다목장어, 통사리, 붉은배새매,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참매, 팔색조	수달, 소쩍새, 붉은배새매, 원앙, 황조롱이, 솔부엉이, 팔색조
영산강하류	큰기러기, 붉은배새매, 큰고니,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새호리기, 매, 새매,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샓,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긴꼬리딱새, 수리부엉이, 백조어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소쩍새, 큰고니,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매, 새매, 검은머리물떼새, 호사도요, 두견, 수달, 하늘다람쥐, 원앙

▶ 우리의 생각

- 영산강이 길어서 특정 지역에만 사는 동물도 있고, 강 전체에 걸쳐 사는 동물도 있었어요. 영산강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동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동물들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더 탐구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 '왜 겹치는지'는 더 알아봐야겠어요.
- 이외에도 영산강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지만 영산강

에서 절멸되었다고 판단되는 야생동식물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절멸(완전 멸종)되었다고 생각되어도 따로 기록을 남겨놓아 혹시 발견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7. 영산강의 환경은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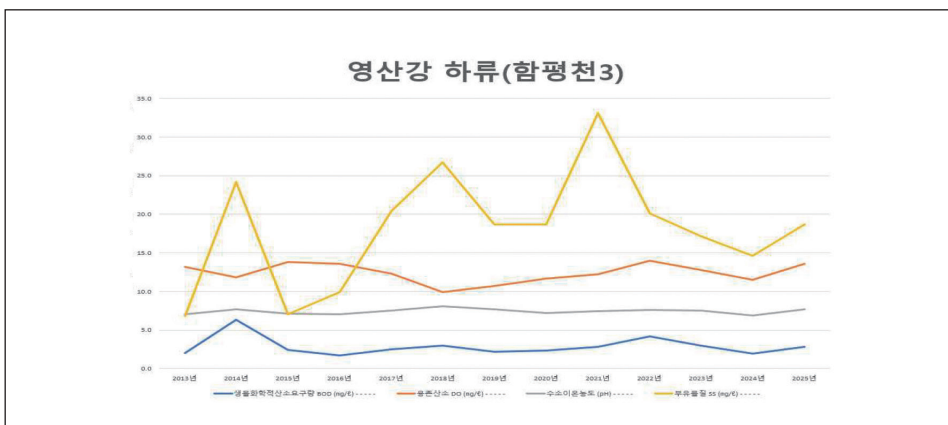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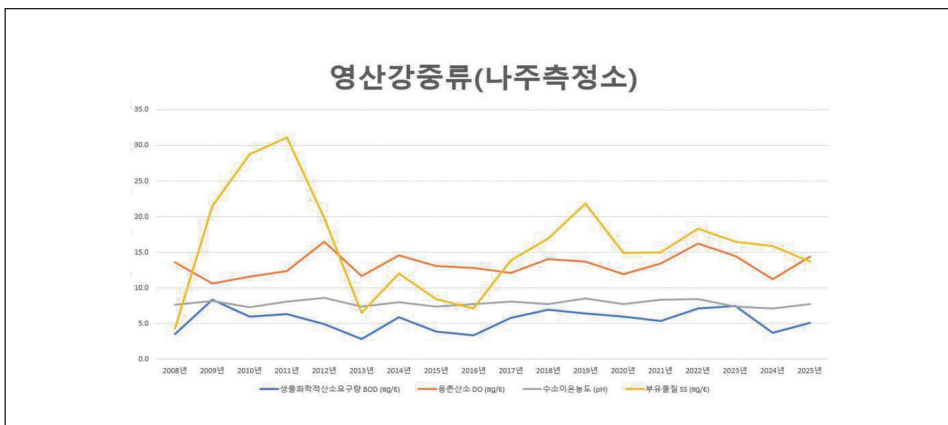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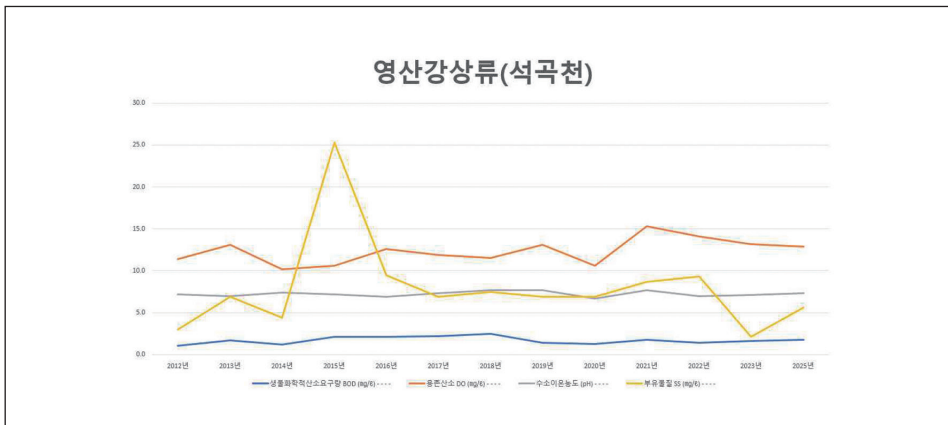
- 뉴스: 이수민, "호남의 젓줄 '영산강 수질' 11년 중 가장 깨끗", 전남매일, (2025년 3월 12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41774033405658011>
- 웹사이트: KOSIS(국가통계포털), 영산강 상류, 중류, 하류의 수질 현황
환경부, 「수질오염실태보고」, 작성일자(2025.02), 하천수의 수질현황-영산강섬진강권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1_0100162&conn_path=I2
환경부, 「수질오염실태보고」, 작성일자(2020.12), 하천수의 수질현황-영산강섬진강권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1_0100062&conn_path=I2

▶ 조사한 내용

구분	내용 요약
전남매일	영산강 수계를 대표하는 6개 지점을 비교하였을 때 지난 10년(2014~2023년) 평균 3.5mg/L와 비교했을 때 2.3mg/L로 34% 개선되었어요. 광주시 하수 관련 시설 개선, 대형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하천 주변 퇴비 유입 최소화 등 기관의 노력으로 좋아졌어요.

- 그래프 데이터 읽기 위한 설명

- ★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높을수록 오염이 심하고, 생물 서식이 어려워집니다. 낮을수록 좋음.
- ★ 부유물질(SS): 물에 떠 있는 고형물(토사, 유기물 등)의 양으로 높으면 좋지 않음. 낮을수록 좋음.
- ★ 용존산소(DO):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보통 5mg/L 이상)으로 높을수록 좋음.
-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영산강의 상류, 중류, 하류 수질 측정 결과를 비교해보니 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유물질(SS)은 줄어들고, 용존산소(DO)는 높아지고, BOD라는 수치도 낮아지고 있어요. 강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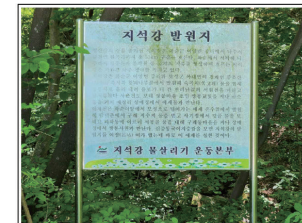
- 상류 쪽이 가장 깨끗했어요. 부유물질이 적고, BOD도 낮았어요. 그런데 강이 내려오면서 (상류→중류→하류) 수질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 우리의 생각

- 영산강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직접 KOSIS라는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기사 내용이 맞았다는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하니 좋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래프로 그리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 정부에서도 영산강의 수질을 더 좋아지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은 물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강을 더 깨끗하게 함께 더 노력해야겠어요.

8. 영산강의 수질 환경은 진짜 좋아졌나요?

▶ 직접 해보기



[영산강 상류 발원지 탐사]



[영산강 상류 발원지 탐사]



[영산강 상류 생태 탐사]



[영산강 상류 생태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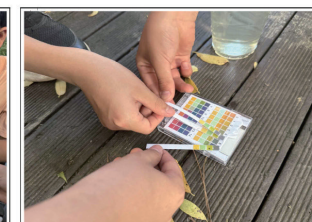
[영산강 상류 생태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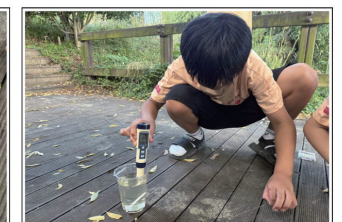
[영산강 상류 생태 탐사]



[영산강 중류 수질 측정]



[영산강 중류 수질 측정]



[영산강 중류 수질 측정]

▶ 알게된 점과 우리의 생각

- 영산강 상류인 지석천 발원지에 가서 깨끗한 물에만 사는 지표 생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류가 정말 깨끗해서 멸종위기종 친구들이 살기 딱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 영산강 중류에 가서 전자기기랑 시험지, 탁도(물의 탁함 정도)를 직접 측정해 봤어요. 중류는 상류만큼 깨끗하지 않아서 김세진 전문가님께 여쭙았는데 중류와 하류로 내려 갈수록 사람들이 버린 폐수, 비료, 공장 오염물질이 물에 섞이기 때문에 물이 더 더러워진다고 하셨어요.
- 강의 오염은 우리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이 많았어요. 우리 모두가 더 관심을 가지고 동물들과 공생하기 위해 인간들의 욕심을 줄여하고,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인 영산강 환경을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9. 영산강 멸종위기종 친구들이 사는 영산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멸종위기종들에게 도움 되고 있나요?

▶ 출처

- 뉴스: 김은경, “금강·영산강 등 보 개방하자 황새 등 멸종위기종 다시 돌아와”, 연합뉴스, (2021년 4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060800530>
- 뉴스: 서미애, “나주 고압철탑 위 천연기념물 ‘황새’…인공 둥지로 지킨다.”, 서울신문, (2025년 6월 15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6/15/20250615500044>
- 인터뷰 대상자: 김세진 국가환경교육강사

구분	내용 요약
전남매일	보를 열자 수질이 좋아지고 강에 사는 생물들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보를 열면 물이 더 빨리 흐르게 되고 야생동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멸종 위기인 황새나 흑두루미 같은 새들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신문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3,000마리도 채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새인 황새가 1971년 이후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황새가 영산강에서 관찰되었는데 위험한 고압철탑 근처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둥지를 만든다고 해요. 영산강의 자연환경이 황새에게 정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p>전문가 인터뷰 (김세진 국가환경 교육강사)</p>	<p>[질문] 영산강의 수질과 서식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멸종위기종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p> <p>수질과 서식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황새가 현재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멸종위기종들에게 수질과 서식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노력하여 잠깐 좋아져서 멸종위기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멸종위기종들이 잘 살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	---

▶ 우리의 생각

- 영산강에 사는 멸종위기 친구들을 위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영산강의 수질과 서식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영산강 멸종위기종 친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 환경이 좋아지면 멸종위기종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산강 중류, 하류의 환경도 더 좋게 만들어서 멸종위기종 친구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어요.

② 팩트체크에서 더 나아가기!
 < 영산강의 멸종위기종들에게 더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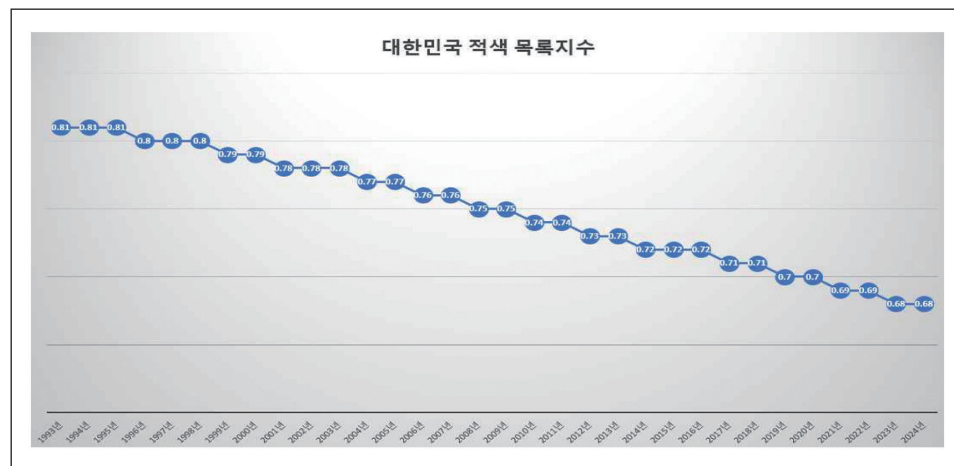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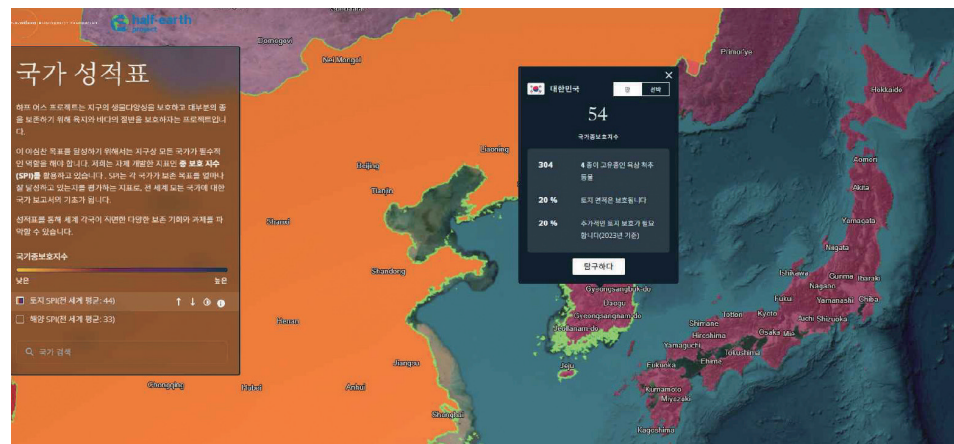
1.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종 및 국가생물종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 출처

- 웹사이트: EO 윌슨 생물다양성 재단, 국가별 종보호 지수 국가 성적표
<https://eowilsonfoundation.org/national-report-card/south-korea/>, <https://map.half-earthproject.org/>
- 웹사이트: Our World in Data, 적색목록지수, 1993년 ~ 2024년 데이터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red-list-index?time=earliest&mapSelect=~KOR>
- 웹사이트: 멸종위기종복원센터, <https://www.nie.re.kr/nie/main/contents.do?menuNo=200312>
- 뉴스: 김정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보호종 지정 기관따라 제각각”, 한겨레, 2019-10-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417.html>

▶ 조사한 내용

구분	내용 요약
국가별 종보호 지수	종보호 지수는 나라가 그 지역의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점수예요. 이 점수는 보호 지역의 서식지 보전 정도, 동식물의 멸종 위험, 멸종위기종 관리 노력이 점수로 된다고 해요. 이 점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아주 잘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고 전 세계 평균은 42점이에요. 우리나라 점수는 54점으로 '기본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멸종 위기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진국·유럽은 60~70점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80점대는 매우 우수한 보전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54점 점수는 멸종위기종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 적색목록은 멸종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점수예요. 이 점수는 국내 생물종의 개체 수 감소, 서식지 파괴, 도시화, 침입 외래종 등을 분석하여 계산된 점수라고 해요. 이 점수가 1점에 가까우면 멸종 위험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0점에 가까우면 멸종 위기에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의 적색목록 점수는 0.68점으로 세계 평균과 비슷해요. 공업화된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지만 멸종위기종들을 위해 계속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구분	내용 요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들을 위해 증장기 연구 계획을 세우고, 보호 방법을 연구하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연과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알리고 있어요. 또 멸종위기종을 키우거나 다시 자연에 돌려보내는 일도 하고 있어요. 경북 영양에 있는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전 세계적으로도 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멸종위기종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보여줘요.
한겨레	환경부와 문화재청 같은 정부 기관들이 나라의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종을 정하는데 때로는 서로 다른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기관이 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한데 일부 전문가들의 경험이나 의견에 의존해서 보호종을 정했어. 이것은 국민 생활에도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나라의 생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 우리의 생각

- 우리나라가 종보호지수나 적색목록지수의 점수가 세계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가 멸종 위기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있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점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멸종위기종 및 생태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기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 국가생물종은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동물과 식물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멸종위기종, 보호받는 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특산식물들이 포함된 '국가보호종'도 있고, 환경부가 정해서 관리하는 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생물종들을 함께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멸종위기종이 야생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3. 멸종위기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 출처

- 인터뷰 대상자: 호남권 국가거점동물원 우치동물원 강주원 수의사님
- 뉴스: 도복희, “생태계를 지키는 사람들1-국립생태원, 이배근 생태조사 연구실장”, 동양일보, (2025년 6월 30일),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9143>

▶ 조사한 내용

구분	내용 요약
전문가 인터뷰 (강주원 수의사)	<p>[질문] 국가거점동물원 우치동물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최근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세계 최초 앵무새 인공부리접합수술 및 멸종위기종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오공이’의 골절 수술을 성공하여 멸종위기종들을 구조하고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질문] 수의사님은 멸종위기종을 생태계로 돌아가게 해줄 때 특별히 어떤 것들을 신경쓰고 노력하시나요? 동물들이 자연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돌려보내야하고, 돌아가서 잘 살아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서식지도 찾아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 진료를 통해 건강, 전염병 등을 관리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p> <p>[질문] 우리들이 멸종위기종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높이나 생태 환경을 보호하여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서식지를 잘 보전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 절약,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잘하기 등을 통해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멸종위기종 연구, 종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p>
동양일보	<p>국립생태원 이배근 연구실장님은 반달가슴곰이나 산양 같은 멸종 위기 동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해서 성공하신 분이예요. “멸종위기종을 복원해야 하는 것은 선순환을 만들기 위함이며, 동물이 복원되어야 숲이 건강해지고 숲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해지는 공생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멸종위기종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복원사업은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면 무효하다. 사람들의 생각 변화와 교육, 전시 등을 통한 복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p>

▶ 우리의 생각

- 멸종 위기 동물들이 다시 자연에서 살 수 있게 하려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요.
-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공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멸종 위기 동물 복원이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런 실천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환경도 멸종위기종도 우리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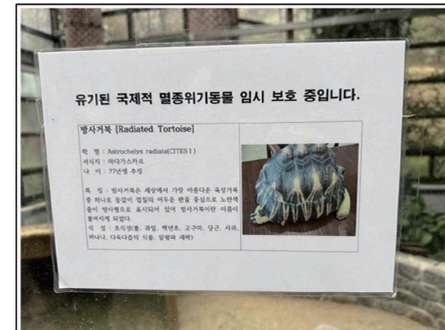
[전문가와 인터뷰]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 출처

- 새활용 프로그램 강사: 새활용창작소 이홍숙 강사
- 플로깅 장소: 영산강 중류 나주, 화순 청풍 생태습지, 화순 지석천

▶ 우리의 생각

- 영산강 환경을 지키기 위해 플로깅(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영산강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 멸종위기 동물을 살리기 위해 집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물을 아껴 쓰는 것 같은 작은 실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 멸종위기 동물 친구들을 알리기 위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영산강의 멸종위기종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알려야겠어요.

▶ 직접 해보기



[영산강 중류 지역 플로깅]



[영산강 중류 지역 플로깅]



[화순 생태습지 플로깅]



[화순 지식천 플로깅]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멸종위기종 홍보 자료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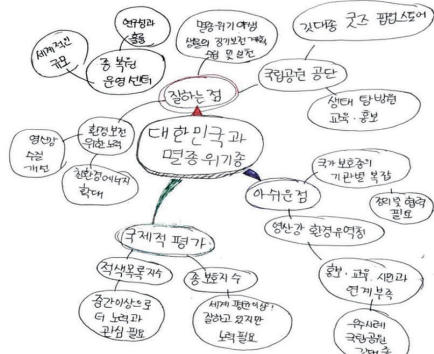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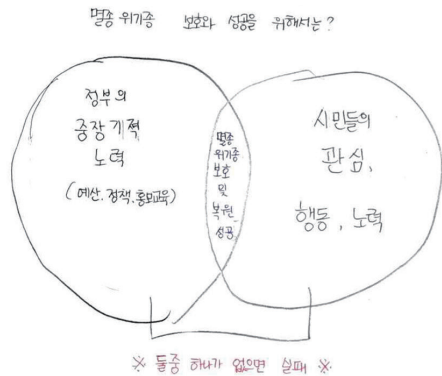
멸종위기종 지정은 영산강의 멸종위기종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팩트체크 결과 멸종위기종을 지정하는 건 멸종위기종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해 남획을 막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요. 또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멸종위기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교육도 해요. 법 덕분에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을 더 좋게 만들고, 다친 동물을 구조하기도 하며, 멸종위기종을 늘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지리산에 사는 반달곰, 산양, 붉은점모시나비, 여우 같은 동물들의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는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지만, 보호에 실패해서 사라진 동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크낙새와 큰수리팔랑나비 같은 동물들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는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완전히 절멸(멸종)했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멸종위기종을 지정했지만, 제대로 연구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보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지키려면 나라와 사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배운 중요한 결론은 멸종위기종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부의 긴 시간 동안의 노력(예산, 정책, 홍보, 교육)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멸종위기종 친구들을 잘 지켜야 해요!

‘멸종위기종을 우리가 왜 보호해야 할까?’ 또는 ‘동물 한 종류가 없어져도 세상이 망하지 않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팩트체크를 하면서 알게된 것은 생태계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동물이 사라지면 그로 인해 도미노처럼 다른 생물들도 영향을 받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도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며 건강한 생태계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다양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욕심을 조금 버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번 팩트체크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사실 팩트체크를 하면서 통계청(KOSIS)에 들어가서 수질 현황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그래프로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또 전문가들

결론 작성하기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플로깅 활동도 하고, 전문 프로그램도 듣고, 매일 다양한 뉴스와 기사들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본선까지 하면 정말 빠르게 6개월이 금방 지나갔지만 힘든 만큼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깨달았어요. 이번 팩트체크를 통해 알게 된 점과 꼭 알려야 할 내용을 홍보 자료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순서	알리고 싶은 내용
1	★ 국가생물종은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동물과 식물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멸종위기종, 보호받는 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특산식물들이 포함된 ‘국가보호종’도 있고, 환경부가 정해서 관리하는 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생물종들을 함께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 멸종위기종을 위해서는 정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더 관심을 가지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3	★ 생태계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만 있어도, 마치 도미노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생태계를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공생하는 노력을 계속하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4	★ 멸종위기종을 위해 멸종위기종의 집인 환경을 우리가 지켜줘야 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자원 아껴 쓰기, 플로깅, 동식물 소중히 보호하기 등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멸종위기종을 지킬 수 있어요.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영산강을 상징하는 친구들을 캐릭터로 만들어 소개하려 해요. 황새는 “황립이”, 하늘다람쥐는 “하늘이”, 담비는 “담봉이”, 삵은 “삵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만든 영산강 캐릭터 친구들은 굿즈나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산강의 소중한 생물들을 알리고, 그들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담당자분을 만나 이 캐릭터들을 국립공원의 깃대종과 같은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안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영산강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면 하는 목표가 있어요. 모두 영산강의 귀여운 친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 상세설명

콘텐츠1 (제작 손채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트체크 결과(멸종위기종 지정은 영산강의 멸종위기종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 ★ 국가생물종, 국가보호종, 멸종위기종이 무엇인가? ★ 왜 멸종위기종을 지켜야 하는가?
콘텐츠2 (제작 배주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종과 생태계를 위해 사람들의 실천의 중요성 ★ 멸종위기종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

콘텐츠3 (제작 송희진)	★ 생태계는 도미노와 같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생태계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야생생물들과 공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	---

제작 굿즈



콘텐츠 1번_카드뉴스(팩트체크 결과 및 국가생물종, 멸종위기종을 소개합니다)



콘텐츠 2번_카드뉴스(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실천해야 해요!)



콘텐츠 3번_웹툰(생물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본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제7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전문가)님과 만남, 미디어 홍보 및 피드백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손옥연 주무관, 자연환경과 정광훈 전문 위원)

우리가 만든 다양한 굿즈와 콘텐츠를 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문가분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영산강의 사라져가는 친구들을 위해 만든 자료들을 발표했어요. 전문가분들은 우리가 만든 미디어 자료를 살펴보고, 생태계 도미노에 다양한 동식물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는 수정할 것도 알려주셨어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영산강의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친구들이 많아서 모두 홍보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며, 우리가 제안한 깃대종과 함께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자료, 웹툰, 굿즈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함께 노력하자는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해주시던 수정할 내용을 미디어에 반영하여 보내주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식 SNS와 인스타그램에도 우리의 자료를 올려 홍보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문가님(공무원)님께 미디어 자료 홍보	영산강유역환경청 공식 블로그 올라온 글	미디어 자료 피드백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문가님과 함께 기념 촬영	영산강유역환경청 공식 블로그 홍보물 QR	영산강유역환경청 공식 블로그 홍보물 QR

정말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기뻐요.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산강의 사라져가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초 전교생에게 미디어 자료 홍보 활동 실시

아침 등교 시간 For영.사.친. 미디어 자료 홍보하기	
점심 시간 For영.사.친. 미디어 자료 홍보하기	
중간놀이 시간 For영.사.친. 미디어 자료 홍보하기	

◆◆초 전교생에게 미디어 자료 홍보 활동 실시



중간놀이, 점심 시간 For영.사.친. 미디어 자료 홍보하기

화순군/함평군의 사람들에게 미디어 자료 홍보 활동 실시



함평군 ○○에서 For영.사.친. 미디어 자료 홍보하기

참여소감

학교	학년	작성한 사람
	5	송희건
<p>저희주제는 '멸종위기종 지정은 진짜 사라져가는 영산강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이다. 이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환경동아리를 하다가 멸종위기종 지정은 해도 복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보니 궁금해서 이주제를 골랐다.</p> <p>우선 우리는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멸종위기종 관련뉴스를 보아 팩트체크를 했다.</p> <p>가장 인상깊었던 뉴스는 '영산강수질 2025년의 10년 중 가장 깨끗'이었다. 그 이유는 영산강에 멸종위기종은 점점 늘고있는데, 수질은 깨끗하다니 앞뒤가 안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김세진 환경전문가 보을 만나서 질문을 했는데 수질은 깨끗해 크도 서식지 파괴, 과도한 개발 이런 이유들 덕분에 수질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하셨다.</p> <p>두번째로는 지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반달가슴곰 부원사업에 대해 탐구 했다. 반달가슴곰을 복원 시켜서 수질개호는 모습을 보았다. 워낙 희귀한 동물이라 눈이 자주 갔다. 그리고 강사님에게 들었는데 반달가슴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멸종위기종은 보낼 시켜서면 우리가 반달가슴곰을 보호한다는 생각보다는</p>		

학교	학년	5	작성한 사람	홍의연
반달가슴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숏했다.				
영산강에 수련나무를 코시스(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수목도 너무 많고 여러 종류인 것 같아서 어려워요. 하지만 수련이 죽어 지고 있다는 통계를 찾을 수 있어 좋았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생태계를 만드는 활동으로 나는 달미를 소개하고 싶었다. 만약 이 책이 잘 되면 지금까지의 활동이 성취감이 느껴지고 부끄럽지 않다.				
나도 이 활동을 마치고 진정한 멸종위기종 지성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기쁘고, 앞으로 일상에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팹트 체크로 진실을 찾아 봐야겠다.				
멸종위기종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멸종위기종과 공생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하면 좋겠다. 나는 멸종위기종과 공생하기 위해 물을 아껴서 식지 파리를 막고, 플로깅 활동을 자주 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학교	학년	5	작성한 사람	배주안
내가 이주제를 선정할 이유는 처음엔 영산강에 관한 뉴스를 하나 보았다.				
그 뉴스에 내용은 영산강에서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이 영산강에서 살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선정한다면 멸종위기종 동물이 더 잘 살 수 있는지 궁금증 생겼다.				
처음에 한 활동은 영산강의 지식천 발원지로 갔다. 그런데 물이 너무 깨끗하다. 근처에서 그런지 뽕새우 같은 1급에서 만 사는 동물들이 산다.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처음 보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뽕새우라는 신기한 동물을 보아 너무 재밌었다.				
2번째로 한 활동은 멸종위기종에 관한 뉴스로 보고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였다. 그중에서 본 뉴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불법 밀수였다. 그중에서 불법적으로 멸종위기종을 오락가락 해서 가져오는 걸 보았다. 그걸 보고 너무 도와야겠다. 그런 불법 밀수는 없어야 한다.				
그런 다른 뉴스를 복원사업이었다. 그걸 보고는 복원사업이 내가 복원사업을 성공한게 너무 기뻐 좋았다. 왜냐하면 멸종위기종이었던 복원 사업이 나비가				

학교	학년	작성한 사람
	5	배주안
<p>멸종위기에서 일반 동물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더 자주 볼수있다는게 좋았다.</p> <p>세번째로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리세진 환경 전문가님과 영산강의 수질측정을 뚝배기였다.</p> <p>왜냐하면 뉴스에서 '죽고' 했던 영산강이 죽었어서 증정을 해보니 냄새도 나고 수질질사로운 결과 수질이 좋진 않았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에 접인 영산강을 위해 우리가 더 노력 해야겠다는 생각이 났다.</p> <p>지금까지 체크트를 해오면서 살아가 너무 더워 하기 싫고...자중도 나고 지만 지금과서 보니 이런 활동을 했다는게 멸종위기종 선정이 도움이 된다는걸 알고 나니 지금까지 한내용이 의미있게 느껴진것 같다. 이걸 안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다른사람들도 같이 노력 하면 좋겠다.</p>		

학교	학년	작성한 사람
	5	손치민
<p>안녕하십니까? 저는 '체크트대회'의 참가한 5학년 손치민입니다. 저는 지금껏 프로젝트 체크트를 하면서 경험하고, 알게된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p> <p>저는 친구들과 함께 체크트대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허다하니 환경기사의 흥미를 느껴, 열심히 했던것 같습니다.</p> <p>저는 다섯 체크트를 하며, 뉴스 기사를 찾아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영산강 수질이 11년중 가장 깨끗하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유는 요즘 환경이 안 좋운데, 영산강이 깨끗하다 하니 너무 행복하고 흥미가 있었습니다.</p> <p>어려웠던 기사도 있는데, 그 기사는 "강을 보게발하니 멸종위기종이 돌아온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보게발이라는 말이 좀 어려웠는데 보게 발은 개발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니 쉽게 해결 되었습니다.</p> <p>저는 팩트체크를 하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 첫번째는 팩트체크 강의를 다 배웠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많이 어려웠는데, 강의록을 다 보니, 우리 생활에는 팩트체크를 필요 하는곳이 많다는 알게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환경신문 기사를 처음으로 읽고 팩트체크 해보았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구글, 네이버를 검색하여 용어를 찾아보고 팩트체크도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할수있어서 행복하고, 보람 있었습니다.</p> <p>멸종위기종 관련 기사를 팩트체크 해보니 깃대종 선정이 멸종위기종들에게 도움이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산강 깃대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것입니다. 저는 황새를 영산강의 깃대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영산강이었는데, 황새가 그 근처 습지답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부화시켜, 영산강의 깃대종으로 어울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p> <p>저는 체크트대회가 끝나더라도, 팩트체크는 끝나지 않았습니. 그리고 친구들과 나라에 가서 황새들을 관찰했는데, 영산강 깃대종으로 황새를 선정하고, 내년에 황새들이 다시 찾아와, 진짜 '황새'를 보고 싶습니다.</p> <p>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p>		